

탈식민적 성취인가, 상업적 자국화인가 - *Human Acts*의 선택적 이국화에 투영된 자국화 번역 전략 -

이지민* · 마승혜**

Jimin Lee and Seunghye Mah (2026). Postcolonial Accomplishment or Commercial Appropriation: The Strategy of Domestication Embedded in the Selective Foreignization of Human Acts. This study critically re-examines Human Acts, the English translation of Han Kang's Sonyeoni Onda, by empirically testing the propositions advanced in prior scholarship through an exhaustive source-target comparison. The analysis reveals a potent strategy of selective foreignization at work beneath the rhetoric of postcolonial representation, which is shaped by the commercial distribution structures of world literature. While the translation constructs a veneer of locality by retaining proper nouns and certain cultural markers, it systematically flattens the experimental narrative and the historical-political context of the source text through deletion, compression, explicitation, and renaming. Notably, the strategies that prior studies identified as consistent principles of foreignization are shown to be applied selectively and inconsistently. Building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offers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forced choices and aesthetic compromises that translation confronts with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world literature distribu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Korea)

Keywords: Postcolonial translation, selective foreignization, domestication, literary translation, *Human Acts*

주제어: 탈식민주의 번역, 선택적 이국화, 자국화, 문학번역, 『소년이 온다』

* 경상국립대학교, 제1저자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신저자

1. 서론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집단적 폭력과 기억의 윤리를 다루며 한국 현대문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표징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의 영어 번역본인 *Human Acts*(2016)는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번역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다수의 문학상 후보로 올랐고, 작가 한강이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 매개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평적 성공의 이면에는 이 번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학계의 첨예한 논쟁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의 한 축은 결텍스트(paratext)와 이탤릭체의 전략적 활용을 근거로,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이 서구 중심적 문학장의 질서에 균열을 낸 탈식민적 성취임을 강조한다(조의연과 조숙희 2017; Yoon 2021). 윤(Yoon 2021)은 *Human Acts*가 문화 특정적 요소를 보존하는 이국화(foreignization) 전략과 역사적 맥락을 보강하는 결텍스트를 통해 문화 제국주의에 저항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다른 한 축에서는 번역가가 원전 특유의 정치적 급진성과 미학적 전복성을 거세하고, 서구 독자의 수용성에 맞춘 상업적 자국화(domestication)를 피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김대중 2021; Pak 2020).¹⁾

본 연구는 이러한 대립적 해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번역 사례 분석을 통해 *Human Acts*가 상업적 글로벌화의 요구와 부분적 이국화 전략이 결합된 전략적 독자 친화 번역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1) 특히 본고는 기존 논의가 번역의 성패와 주체를 데보라 스미스 개인의 선택으로 환원해 왔던 관점을 지양한다. 2018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국제 인문포럼에서 데보라 스미스가 직접 밝혔듯(이지민 2018b), 영미권 출판 시장에서 편집자는 결말까지 수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며 번역은 작가, 번역가, 편집자 간의 복합적인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번역가라는 용어는 개인을 넘어, 글로벌 자본의 논리와 편집 권력이 개입된 확장된 번역 주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것이다. 다만 이때의 '확장된 번역 주체'는 번역가 개념을 규정하는 분석적·개념적 층위의 설정이며, 출판사·에이전트·편집자 등 개별 행위자의 구체적 개입 양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 후속 과제로 남긴다(5장 참조).

2. 선행연구 검토

2.1. 식민주의·탈식민주의와 번역의 정치학

번역은 결코 중립적 언어 전이가 아니라 권력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정치적 실천이다. 니란자나(Niranjana 1992: 2)는 식민주의 통치하에서 번역이 피식민 문화의 표상을 고정하고 서구 중심적 지식 체계를 재생산한 방식을 분석하면서 번역을 “식민주의의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 권력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실천 (Translation as a practice shapes, and takes shape within, the asymmetrical relations of power that operate under colonialism)”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통찰을 통하면 비서구 텍스트가 영어로 번역될 때 작동하는 위계적 권력의 문제가 학문의 중심이 된다.

스피박(Spivak 1993)은 서구 중심 번역 관행이 제3세계 텍스트의 고유한 결을 훼손하는 양상을 분석하며, 이를 ‘번역주의(translationese)’라는 개념으로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제3세계의 이질적인 목소리가 서구의 표준적이고 유창한 영어 문체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원문이 지닌 수사적 특수성과 문화적 마찰은 필연적으로 삭제된다. 이러한 번역주의는 서로 다른 역사적·문화적 층위를 지닌 타자들을 하나의 균질한 집단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서구 독자가 수용하기 용이한 가공된 타자성을 생산하는 신식민주의적 폭력을 내포한다. 이에 스피박(1993: 183)은 번역가가 원문의 논리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원어의 구조와 한계에 굴복할 것을 제안한다.²⁾ 이는 타자의 목소리가 지닌 생경함과 고유한 문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번역의 윤리적 책무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티모츠코(Tymoczko 1999, 2007)는 번역의 필연적인 선택성에 주목하여 이를 ‘부분적 재현(partial representation)’과 ‘제유(metonymy)’의 관점에서 이론화한다. 그는 번역가가 원문의 방대한 문화적 정보를 온전히 전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특정 측면만을 선택적으로 재현할 수밖에

2) “...the translator must surrender to the text. She must solicit the text to show the limits of its language, because that rhetorical aspect will point at the silence of the absolute fraying of language that the text wards off, in its special manner(번역가는 텍스트에 굴복해야 한다. 번역가는 텍스트가 스스로 그 언어의 한계를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가 특별한 방식으로 언어가 완전히 해체되고 침묵하게 되는 것을 막고 있고, 텍스트의 수사적 표현은 바로 그 침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Spivak 1993: 183).

에 없음을 역설한다. 이때 번역가의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기제는 그가 처한 사회적·정치적 좌표인 ‘위치성(positionality)’이다. 식민주의적 위계 하에서 지배 권력은 피식민 문화의 특정 과편만을 제유적으로 부각하여 그 열등함을 공고히 하는 재현의 정치를 수행한다. 그러나 번역가는 자신의 위치성을 자각하고 전략적인 ‘부분적 재현’을 실행함으로써 지배 담론에 균열을 낼 수 있다. 티목즈코(2007: 189, 216-217)에게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복제를 넘어 번역가의 ‘행위 주체성(agency)’이 발현되는 정치적 실천이며, 이를 통해 피지배 문화에 권력을 부여하는 ‘권한 부여(empowerment)’의 수단이 된다.

탈식민주의 번역의 핵심 전략은 주변부 언어로 쓰인 원작이 패권 언어인 영어로 전이될 때, 원문의 언어적·문화적 고유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데 있다(Bassnett and Trivedi 1999: 13). 이러한 탈식민주의 번역 이론은 베누티(Venuti 2008)의 이국화와 자국화 개념을 통해 번역 차원에서 구체화된다. 베누티(2008: 16)는 영미권의 출판 관행이 투명성의 환상에 기초한 자국화 번역을 지배적 규범으로 제도화해 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번역가를 비가시화하고 원천 문화의 차이를 영어 독자의 인지 관습 안으로 흡수해 왔다고 비판한다. 그 대안으로 그는 이국화 번역을 제안하는데, 이는 영어권의 패권 국가들과 그들이 자국 외부의 타자들과 맺는 불평등한 문화적 교환에 맞서는 전략적 문화 개입이며,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주의, 문화적 자아 도취,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베누티(2008)는 이국화가 어디까지나 영어 출판 시장 내부에서 수행되는 전략임을 명시하면서, 그것이 시장 외부에서 작동하는 절대적인 윤리가 아니라 시장 안에서의 의도적·국지적 균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국화의 존재 자체가 곧 탈식민적 윤리의 성취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것이 어떤 규모로 어떤 자국화 기제와 결합되어 작동하는가에 따라 그 정치적 효과가 달라진다.

2.2. 『소년이 온다』 영역본에 관한 선행 연구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 *Human Acts*에 대한 기존 논의는 크게 탈식민적 재현, 미학적·정보적 조정, 그리고 문화적·정치적 왜곡이라는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가 비판적 재검토의 일차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첫 번째 갈래, 즉 *Human Acts*를 탈식민적 재현의 성취로 규정한 논의(Yoon 2021; 조의연과 조숙희 2016, 2017)이다. 나머지 두 갈래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

다. 미학적·정보적 조정 연구는 번역에 나타난 조정·삭제 양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문화적·정치적 왜곡 연구는 본 연구의 비판적 관점을 공유하는 선행 논의로 각각 활용된다.

우선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을 탈식민적 재현의 성취로 규정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윤(2021)은 데보라 스미스가 서문을 통해 한국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배경과 작가의 역사 해석 방식을 상세히 해설하며 독자의 이해를 도운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한옥(hanok)’, ‘언니(onni)’, ‘선생(seonsaeng)’과 같은 한국어 호칭 및 문화 특정적 어휘를 음차하여 이탤릭체로 표기하거나, 한국 고유의 나이 체계를 텍스트 내에 고수하는 등의 선택을 탈식민적 번역 실천의 일환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고유성을 원형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서구 중심적인 문화 제국주의에 균열을 내며, 패권 언어인 영어와의 불평등한 교류 구조에 저항하는 이국화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의연과 조숙희(2016, 2017)는 이탤릭체의 문체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데보라 스미스가 원문의 이탤릭체 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확장함으로써 등장인물의 내밀한 고통과 정서를 시각적으로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번역 전략을 미학적 문체 구현과 정보의 선별적 조정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신상범(2020)은 데보라 스미스가 원문의 미학적 충위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정보량을 의도적으로 축소·조정했으며, 이를 원작에 대한 예술적 재구성으로 규정했다. 이지민(2018a) 또한 데보라 스미스가 정보성을 제어함으로써 서구 독자의 플롯 이해도를 높였다고 분석한다. 윤미선과 박건영(2019)은 독자 수용 측면에서 번역가가 문장 길이를 조절하고 본문 내 설명을 삽입하여 모호성을 제거한 전략이 가독성을 향상시켜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음을 확인했다. 윤선경(2024)은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을 한국 문화와 영미권 문화 간 차이를 타협하면서도 원문의 시적 문학성을 새로운 영어 독자를 위해 재창조한 독립적 문학 작품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을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조정·변형·삭제의 광범위한 양상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이 지닌 정치적 희석과 상업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들이 있다. 김대중(2021)은 데보라 스미스가 원작이 지닌 미적 총체성과 그 안에 내재된 혼란을 없애고, 광주의 구체적 역사성을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 탐구라는 추상적 틀로 재구성함으로써 정치적 전향성을 약화시켰다고 비

관한다. 박(Pak 2020)은 한강의 *Human Acts*를 트라우마 번역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이 한강이 원문에서 구축한 주체성의 모호함, 폭력 앞의 세계 균열, 그리고 증언 가능성의 윤리적 한계를 적극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Human Acts*가 결텍스트를 통한 역사적 사실 보완과 이국화 전략을 통해 탈식민적 저항을 일관되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들이 텍스트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나아가 해당 작품이 탈식민주의 번역의 대표성을 온전히 획득했는지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작품을 둘러싼 제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Human Acts*는 순수한 탈식민적 저항의 산물이라기보다 이질감 없는 번역을 선호하는 영미권 독자층(신지선과 조혜진 2018)의 기대를 반영한 상업적 번역의 결과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선행 연구가 탈식민주의 번역 사례로 규정한 지점들을 전수 조사하여, 이러한 번역 전략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번역가의 의식적인 개입 여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Human Acts*에 나타난 자국화 번역 기제

본 절의 분석은 선행연구가 *Human Acts*의 탈식민적 번역 또는 이국화 전략의 근거로 제시한 논의를 원문-번역문 대조를 통해 실증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절차는 (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를 명제 단위로 추출하고, (2) 해당 전략이 텍스트 전반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검증한 뒤, (3) 불일치가 관찰된 지점을 새로운 분석 단위로 재구성하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일례로 ‘선생’ 호칭의 경우, 원문의 전체 용례(22회)를 전수 추출하여 번역문의 처리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가 일관된 번역 원리로 제시했던 전략들의 실제 적용 양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일관성을 본 연구의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2장에서 검토한 선행연구의 상반된 관점을 직접 대질(對質)시키는 방식으로 도출되었다. 즉, 윤(2021)이 탈식민적 재현 또는 이국화의 근거로 제시한 개별 명제들을, 김대중(2021), 박(2020)이 제기한 상

업적 자국화 비판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결과 드러나는 (비)일관성을 베누티(2008)의 ‘시장 내적 전략으로서의 이국화’ 및 티목츠크(1999, 2007)의 ‘부분적 재현·위치성’ 개념에 비추어 해석하였다. 이때 각 분석 절은 선행연구의 특정 명제에 일대일로 대응한다. 즉, 결텍스트를 통한 역사적 맥락의 프레이밍(조의연과 조숙희 2016, 2017; Yoon 2021)은 3.1에서 살펴보고, ‘선생(seonsaeng)’과 같은 호칭의 음차(Yoon 2021)는 3.2에서, 실험적 서사 및 미세 묘사의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3.3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장 제목의 처리 방식은 3.4에서, 한국 고유의 나이·층수 등 수치 체계의 조정(Yoon 2021)은 3.5에서, 마지막으로 ‘무궁화꽃’ 등 문화특정 표현의 축여역(Yoon 2021)은 3.6에서 각각 전수조사를 통해 검증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일관된 원리’로 제시한 명제가 실제 텍스트에서 어떻게 (비)일관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분석 단위로 재구성한다.

3.1. 결텍스트의 프레이밍

데보라 스미스는 서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요약하며, 이를 ‘안티고네(Antigone)’나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등 서구권 독자에게 친숙한 신화 및 사건에 비유한다. 이러한 결텍스트는 정보적 측면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 듯 보이지만, 실상 수용자의 해석 지평을 특정 프레이밍으로 선제 규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광주의 희생자를 안티고네의 시신에 병치하는 해석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서구 고전 비극의 문법으로 재구성하는 프레이밍이다. 이 비유는 국가법과 개인 양심의 충돌이라는 윤리적 딜레마를 부각하는 대신, 수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무장하여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정치적 봉기로서의 성격을 탈색시킨다. 나아가 군사정권을 계획적 학살을 자행한 국가 권력이 아닌, 오만에 빠진 비극적 군주로 치환하여 인식하게 할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1972년 북아일랜드의 ‘피의 일요일’과의 비교 역시 광주의 역사성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전자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의 종파적·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단발성 대량 총격 사건이었다면, 1980년 광주는 열흘 이상 지속된 범시민적 반독재 저항운동이자 무장 자치가 실현된 거대 서사였다. 국가 폭력이라는 모티프는 공유할지언정 그 목적과 규모, 지속성 면에서 결을 달리하는 두 사건을 나란히 놓는 것은 낯선 타자의 역사를 서구 독자의 인지 범위 내로 편입시키려는 자국화

전략의 산물이다. 이는 스피박(1988)이 경고했듯, 서발턴(subaltern)의 외마디 비명을 지배적 재현 체계 속으로 매개하여 그 고유한 정치성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가깝다. 즉, 보편성을 빙자하여 서구적 참조 틀로 편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단어 삭제 및 재명명

번역문에는 ‘taegeukgi(태극기)’, ‘pyeong(평)’, ‘onni(언니)’와 같은 한국어 고유어가 간헐적으로 등장하지만, 이는 지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맥락에서 영어식 표현으로 환원된다. 윤(2021)이 이국화의 사례로 꼽은 ‘seonsaeng(선생)’의 경우, 본 연구자의 전수 조사 결과 원문에서 호칭으로 사용된 22회 중 단 1회만 음차되었을 뿐, 나머지는 ‘sir’, ‘professor’, ‘miss’ 등으로 번역되거나 생략되었다.

특히 여성 화자인 임선주만을 ‘Miss Lim’으로 번역한 것은 원문이 지닌 수평적 동료 의식을 지우고 오히려 가부장적 위계를 투사한 결과이다. 만약 이것이 한국어의 위계적 의미를 보존하려는 탈식민적 전략이었다면 ‘선생’이라는 호칭을 일관되게 유지하거나 그 맥락을 설명하는 주석적 개입이 뒤따랐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이국화는 텍스트 전반을 관통하는 번역 원리라기보다, 독자에게 외국 문학이라는 안전한 이국적 정취만을 제공하는 상징적 증표이자 마케팅적 표식으로 기능한다. 이는 수용 문화의 기대에 부응하여 특정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배제한다는 티목츠코(1999)의 관점과 일치하며, 번역가가 시장 논리에 철저히 영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Human Acts*의 선택적 이국화 전략은 표면적으로 현지성을 전시한 상업적 자국화로 설명할 수도 있다.

*Human Acts*에서는 어휘, 문장, 나아가 텍스트 층위 전반에서 원문의 구체적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양상이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이는 도착어 독자의 인지적 부하를 줄이려는 전략이나, 결과적으로 원문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희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먼저, 지명 및 공간을 비가시화하고 개작하여 문화적으로 채색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번역문에서는 광우항쟁의 상징적 공간인 ‘금남로’를 비롯하여 ‘중흥동’, ‘삼각동’ 등 구체적 지명이 모두 탈락한다. 반면 ‘한옥(hanok)’과 같이 서구 독자가 직관적으로 한국적 이국성을 느낄 수 있는 어휘는 선택적으로 보존되거나 오히려 강조된다.

[사례 1]

ST: 중흥동 집 팔고 삼각동으로 이사가면서 복덕방에서 계약을 했는데, 내가 D중학교 선생이라고 하니까 집사는 사람이 활짝 반가워 하더라고. (p.193)

TT: When we sold the hanok and moved, I introduced myself to the new buyer as a teacher at D middle school; the man was really glad to meet me,... (p.202)

[사례 1]에서 원문의 ‘중흥동 집’이 ‘hanok’으로 번역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구체적인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명을 지우는 대신,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선호하는 시각적 기표로 대체함으로써 공간의 역사성을 문화적 풍경으로 치환한 결과다.

다음, 계급적 함의를 삭제하여 중산층적으로 평탄화하였다. 한국 고유의 노동 문화를 내포한 공간 및 사물 역시 영미권 중산층의 기표로 치환되며 맥락적 왜곡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례 2]의 ‘함바집’과 [사례 3]의 ‘반찬통’의 번역이다.

[사례 2]

ST: 윤 대리까지 넷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와 삼거리 고깃집 옆에 있는 함바집에 갔다. (pp.72-73)

TT: ...so they locked the door behind them before walking up to the cafe by the junction. (p.77)

ST의 ‘함바집’은 건설 현장이나 노동 집약적 산업 현장 인근의 허름한 식당을 의미하며, 1980년대 한국의 노동·서민적 정서를 강하게 환기한다. 이를 깔끔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지닌 ‘cafe’로 일반화한 것은 공간이 지닌 계급적 감각을 삭제한 전형적인 자국화 기법이다. 이러한 경향은 ‘반찬통’의 번역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례 3]

ST: 나는 멸치볶음과 콩자반을 접시에 덜었습니다. (p.129)

TT: I scooped some stir-fried anchovies out of a Tupperware container and onto a plate... (p.135)

[사례 3]을 살펴보면, 영어권 독자에게 ‘Tupperware’는 1950~70년대 서구 교외 중산층의 정돈된 부엌과 깔끔한 가공 방식이 결합된 상징적 기표다(Vincent 2003).

원문에는 없는 이 구체적 브랜드명의 삽입은 독자로 하여금 1980년 광주의 절박한 서민 가정의 풍경 대신, 미국의 안락한 중산층 가정을 연상케 한다. 이는 당시 한국의 지리적·계층적 특수성을 약화시키며 독해의 문턱을 낮추는 ‘자국화적 평탄화’라 할 수 있다.

또한 ‘반찬통’은 남은 음식을 다시 보관하고 꺼내 먹는 한국 특유의 공동체적 식문화를 내포하지만, 이를 ‘Tupperware’라는 수입 브랜드 용기로 명명함으로써 원문이 지닌 생활 양식의 고유성을 서구적 소비 문화의 틀 안으로 포섭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명명은 독자에게 안전하고 익숙한 타자성만을 제공할 뿐, 원작이 대면하게 하는 당대 한국 사회의 처절한 현실성을 무력화한다.

3.3. 문장 및 단락 삭제

감각과 심리의 미세한 결을 구축하는 묘사(예: 안경에 서리는 김, 몸의 어른거림 등)나, 정대의 혼령 서사(2장)와 같은 실험적 기법들은 아래 [사례 4]처럼 번역 과정에서 대폭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

[사례 4]

ST: 왜 누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어스름이 내리자 새들이 울음을 그쳤어.

낮에 울던 풀벌레들보다 가냘픈 소리를 내는 밤의 풀벌레들이 날개를 떨기 시작했어.

완전히 어두워지자, 간밤에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에 닿아왔어.

어른어른 서로의 언저리를 어루만지다 우리는 흠어들었다.

어쩌면 우린 낮 동안 띄워별 아래 꿈쩍 않고 머무르며 비슷한 생각에 골몰해 있었던 것 같았어.

밤이 되어서야 몸의 자력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져나올 힘을 얻은 것 같았어. 그들이 다시 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어루만졌고, 서로를 알고 싶어했고,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철문이 열렸다 닫히는 두 번의 쇠소리가 밤의 침묵을 갈랐다. (p.52)

TT: Why did you kill my sister, what did you do to her?

The metal screech of the iron gate opening and then closing sliced through the silence of the night. (p.56)

그 외에도 박 양에 관한 일화(3장)나 광주 진압의 잔혹성을 다룬 대화(6장) 중 상당 부분이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정리되었다. 이러한 삭제의 누적은 원문이 의도한 정동적 여운과 폭력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약화시킨다. 또한, 이는 원문의 특징인 혼란, 비가시성, 과편화의 미학을 휘발시키고 ‘사건-원인-결과’라는 선형적 인과관계를 강화하여 독자의 편의적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본문에서 독자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수행된 삭제와 명시화는 티목츠코(1999)가 지적한 ‘부분적 재현(partial representation)’의 전형이다. 즉, 번역가가 특정 요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배제함으로써 원문의 복잡성을 단순화한 것이다. 나아가 서사 전개에 불필요하다고 간주되어 제거된 요소들은 사실 해당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적 결(texture)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때 제거된 요소들—각각 심리의 미세한 묘사, 정대의 혼령 서사, 과편화된 비선형 구성—은 부수적 장식이 아니라 원문이 5·18의 집합적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바로 그 형식적 장치이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축약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 생성 방식 자체를 평탄화하는 것이며, 이를 제거하거나 지나치게 매끄럽게 다듬는 행위는 스피박(1993)이 비판한 ‘번역주의’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번역 전략은 원문이 지닌 거친 타자성을 삭제하여 서구 시장에서 소비되기 용이한 매끄러운 상품으로 가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2020) 또한 이러한 삭제와 명시화가 한강의 원문이 구축한 주체성의 모호함과 트라우마의 비가시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3.4. 제목과 장 제목의 재명명과 탈맥락화

원작 『소년이 온다』 각 장의 시적인 제목(「어린 새」, 「검은 숨」, 「일곱 개의 뺨」 등)은 번역본에서 ‘인물/역할+연도’ 체계(‘The Boy, 1980’, ‘The Editor, 1985’, ‘The Boy’s Mother, 2010’ 등)로 재명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일종의 친절한 안내판으로 기능하며 서사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표 1. 원작과 번역본의 장 제목

	ST	TT
1 장	어린 새	The Boy, 1980
2 장	검은 숲	The Boy's Friend, 1980
3 장	일곱 개의 뺨	The Editor, 1985
4 장	쇠와 피	The Prisoner, 1990
5 장	밤의 눈동자	The Factory Girl, 2002
6 장	꽃 핀 쪽으로	The Boy's Mother, 2010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	The Writer, 2013

그러나 이러한 명시화 전략은 원작이 정교하게 설계한 심미적 장치들을 희생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3장의 경우, 원작 제목(‘일곱 개의 뺨’)과 달리 번역본 제목(‘The Editor, 1985’)은 첫 문장에서부터 편집자의 정체를 즉각 노출하며, 6장 역시 번역본에서 장 제목(‘The Boy’s Mother, 2010’)을 통해 화자를 특정한다. 이로 인해 독자가 텍스트의 과편들을 맞추며 화자를 점진적으로 식별해 나가는 원작의 지연된 인지 효과는 완전히 상실된다.

결국, 이러한 재명명은 서구 독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자국화적 재조정의 일환이다. 요컨대, 이 번역 텍스트는 표면적으로 선택적 이국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삭제, 압축, 명시화로 점철된 자국화적 재서술 체계가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3.5. 문화특정어휘의 일관성 문제

나이 계산법이나 건물 층수 표기 등 문화적 특수성이 담긴 수치를 번역할 때, 전략적 비일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윤(2021)은 번역가가 한국의 연 나이 계산 방식을 고려해 원문의 ‘열아홉 살’을 ‘eighteen years’로 조정([사례 5])한 것을 두고,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 평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는 도착어 문화의 나이 계산법에 맞춘 자국화 전략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사례 5]

ST: 버스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던 열아홉살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었다.

(p.69)

TT: Eighteen years old and passing by on the bus, she'd screwed her eyes tight shut. (p.73)

문제는 이러한 조정이 텍스트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일 작품 내에서도 [사례 6], [사례 7]과 같이 원문의 수치를 그대로 직역한 사례가 빈번히 공존한다.

[사례 6]

ST: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열일곱살이었다. (p.136)

TT: You were seventeen when you first heard it described that way. (p.143)

[사례 7]

ST: 처음 혼자서 망월동을 찾았던 스무살의 겨울을 기억한다. (p.205)

TT: I remember the winter when I was twenty, when I went alone... (p.214)

나이 번역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열아홉 살’을 ‘eighteen’으로, ‘스물네 살’을 ‘twenty-three’로 낮추어 번역한 경우는 총 3회에 불과했다. 반면, 원문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경우가 2회 있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나이 정보를 아예 생략했다. 요컨대 나이 표기를 관통하는 단일한 번역 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조정 사례가 3회에 그쳤다는 사실이 곧 자국화 경향의 약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장 빈번한 처리 방식인 ‘생략’이야말로 수치 차이로 인한 독자의 혼란을 차단하고 가독성을 확보하려는 자국화 중심의 기본으로 기능한다. 즉, 이 지점에서 확인되는 것은 ‘조정이나 직역이나’라는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이국화 원리가 부재한 가운데 가독성 우선의 자국화적 처리(조정 또는 생략)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번역 단위의 비일관성은 [사례 8]과 [사례 9]의 층수 표기 방식에서도 반복된다. 한국의 ‘이층’은 영국식 표기법(Ground floor - 1st floor)과 미국식 표기법(1st floor - 2nd floor) 사이에서 번역 전략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

[사례 8]

ST: 위태하게 이층 난간을 붙들고 서서 너는 떨어졌다. (p.92)

TT: You stood there clinging to the second-floor railing... (p.97)

[사례 9]

ST: 여자들은 이층에 모여 있어. (p.87)

TT: women were all supposed to go up to the first floor. (p.92)

원문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층’은 문맥에 따라 ‘first floor’([사례 9])와 ‘second floor’([사례 8])로 혼용되어 번역되었다. 작품 전체에서 ‘이층’은 총 9회 등장하는데, 단 1회만 ‘the first floor’로 조정하여 번역했으며, 3회는 ‘the second floor’로 직역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정보를 생략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번역가가 고유 명칭이나 표면적 어휘를 보존함으로써 원문 문화에 충실한 듯한 외관(이국화)을 취하면서도, 나아가 층수처럼 한 사회의 인지적 기반을 이루는 구조적 수치 체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번역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번역의 균열은 문화적 요소를 표층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칠 뿐, 문화 시스템이 지닌 위치성과 구조적 의미를 내재화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즉, 지명이나 이름 같은 가시적인 고유 요소는 이국화의 장식으로 남겨두면서도, 사고 체계와 직결된 구조적 문화 코드는 서구 독자의 인지 관습에 맞춰 암묵적으로 조정하거나 방치한 것이다. 가독성을 담보로 한 이러한 선택적 조정은 번역 과정에 내재된 문화적 역학 관계의 은폐이자, 체계적 문화번역의 부재를 방증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앞서 언급한 자국화적 재서술의 견고한 배치 속에 발생할 논리적 균열이며, 상업적 자국화의 속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3.6. 문학적 vs 축어적 번역의 선택적 운용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이 원문의 문학적 결을 살리는 문학적 번역임을 지향한다고 밝혔으나(Yoon 2021),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국적 효과를 노린 축어적 번역과 번역가의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자국화된 비유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사례를 또한 볼 수 있다.

먼저, 선행연구(Yoon 2021)에서 탈식민지적 번역으로 제시한 [사례 1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경우, 한국의 전통놀이를 서구권의 유사한 놀이인 ‘red light, green light’로 치환하는 대신 ‘The hibiscus has blossomed’라고 축어적으로 번역하였다.

[사례 10]

ST: (아이들이) 커다란 돌 사이로 뛰어 땡김스로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채석장 끝에서 소리지르면 마당까지 들렸 제. (pp.185-186)

TT: The big chunks of granite made it prime territory for hide-and-peek, for shouting 'the hibiscus has bloomed' at the top of their voices. I could hear them... (p.193)

이러한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이국적 색채를 보존하는 듯 보이지만, 놀이의 규칙과 맥락을 알지 못하는 서구 독자에게는 원문의 의도한 놀이 특유의 긴장감을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술래잡기’와 같은 표현은 보편적인 ‘hide-and-peek’으로 환원함으로써, 이국화와 자국화 사이의 일관된 기준 없이 가독성과 이색적 분위기 사이를 위태롭게 오간다.

나아가 번역가의 자의적 개입은 원문의 인물상까지 왜곡하기도 한다. [사례 11]은 6장의 무언극 장면에서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는 여성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원문에 없는 비유를 삽입하여 인물상을 왜곡하였다.

[사례 11]

ST: 다시 말없이 여자가 고개를 돌려 무대 오른쪽을 본다. (p.98)

TT: The woman turns now to the right, still silent as a marionette. (p.104)

원문의 여성 화자는 광주의 비극을 몸소 겪어내고 증언하는 능동적이고 강인한 주체다. 그러나 번역문은 이 여성을 ‘마리오네트(marionette)’³⁾에 비유함으로써, 인물의 기괴함과 수동적 측면을 부각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화자를 ‘마리오네트’에 비유한 것은 마리오네트가 서구 담론에서 흔히 ‘자율적 의지가 거세된 수동적 존재’(Nelson 2003) 혹은 ‘인간성을 상실한 기괴한 형상’(Freud 1919/2024)으로 소비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한 선택이다. 원문의 화자가 지닌 고통의 주체성은 번역가가 덧입힌 ‘마리오네트’라는 기표에 갇혀, 역사의 파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비인격적인 인형의 움직임으로 치환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 번역은 원문의 정서적 깊이를 전달하기보다 번역가의 주관적 해석이 덧입혀진 과도한 문학적 가공이라

3) 마리오네트는 프랑스어 ‘마리오네트(Marionette)’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머리, 어깨, 손, 발 등 주요 관절 마디마디에 실을 매달아 움직이는 인형이다. 인형 위에 연결된 나무 막대, 즉 컨트롤 바를 조작자가 직접 움직여 인형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연출된다.

할 수 있다.

결국, 번역가가 표방한 문학적 번역은 실제 텍스트 층위에서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별적 의역과 이국적 취향을 자극하기 위한 파편적 직역의 불균형한 조합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는 원문의 진실성을 온전히 전달하기보다 서구 시장의 미학적 기준에 맞춘 전략적 재서술의 또 다른 단면이다.

4. 논의: 탈식민적 재현인가, 상업주의적 포섭인가?

일부 선행연구는 『소년이 온다』의 번역본인 *Human Acts*에 나타난 풍부한 결텍스트, 한국어 고유어 표기, 확장된 배경 설명 등을 근거로 이를 탈식민적 번역 행위라 평가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선행연구가 일관된 번역 원리로 제시했던 전략들은 실제 텍스트에서 선택적이고 비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이러한 번역 장치들은 원문의 이질성을 보존하기 위한 독립적 저항의 발로라기보다, 오히려 시장 친화적 이해를 보증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번역가는 서문과 각주를 통해 ‘안티고네’나 ‘피의 일요일’과 같은 서구적 참조틀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해석 비용을 선제적으로 낮추었으며, 본문에서는 삭제, 압축, 명시화를 통해 원문의 파편화된 서사와 인지적 모호함을 체계적으로 제거했다. 곳곳에 남겨진 소수의 한국어 어휘와 호칭은 원문의 타자성을 온전히 전달하기보다 현지성을 증빙하기 위한 선택적 장식에 가깝다. 이러한 방식은 스피박(1993)이 지적한 언어의 정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티목즈코(2007)가 강조한 문화적 위치성의 재현에도 실패한 결과다. 원문화의 구조적 의미 체계를 드러내어 독자의 인식 지형에 도전하기보다, 표피적 이국성만을 취사선택하여 제시함으로써 불균형한 문화 번역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비일관성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파편적으로 잔존하는 이국화가 원문의 이질성을 보존하려는 독립적 저항의 산물일 가능성과 번역 전반의 비일관성이 의도된 전략이 아니라 편집 과정의 우연한 실수일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결과 무엇보다 비일관성의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두 해석은 성립될 수 없다. 고유명사나 ‘hanok’처럼 가시적이고 장식적인 이국적 표지는 보존되는 반면, 나이·층수·호칭과 같이 독자의 인지 기반을 이

루는 구조적 문화 코드는 체계적으로 평탄화되었다. 무작위적 오류라면 이와 같은 방향성 있는 비대칭이 반복적으로 관찰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이러한 처리 방향은 ‘독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번역을 지향한다는 번역 주체의 명시적 입장(이지민 2018b: 204) 및 이국화·자국화의 전략적 혼용을 실무 표준으로 보는 동시대 번역 현장의 인식(Badioiu and Lee 2022)과 부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우연한 오류나 개별적 저항이 아니라, 세계문화 유통 환경 속 ‘확장된 번역 주체’(각주 1 참조)의 구조적 선택으로 해석한다. 결국, 오늘날의 번역 현장에서는 이국화와 자국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보다, 상업적 성공을 위해 두 전략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합하는가 하는 전략적 혼종성이 산업적 표준이 되어간다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 영문판 *Human Acts*를 분석하여, 해당 번역이 표방하는 탈식민적 재현의 수사 이면에 상업적인 목적의 선택적 이국화 전략이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분석 결과, 번역본은 고유명사와 일부 문화 표지를 유지하며 표면적 현지성을 구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삭제, 압축, 명시화 및 재명명을 통해 원문의 실험적 서사와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평탄화하고 있었다. 특히 나이 계산, 층수 표기, 호칭 체계와 같은 구조적 문화 코드가 일관성 없이 조정되거나 소거됨으로써, 원문이 지닌 고유한 의미 생성 방식과 문화적 위치성은 충분히 재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양상은 티목츠코(1999, 2007)가 언급한 선별적 제시가 수용 문화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고착된 사례이며, 스피박(1993)이 우려한 바와 같이 타자의 목소리가 지배적 재현 체계 속에서 재구성되는 언어의 정치성이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번역은 이국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독자의 인식을 교란하는 방식이 아닌 이해 가능한 범위 내로 조율된 안전한 타자성으로 재배치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원문이 지닌 타자성의 급진성과 불편함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의 결론은 번역의 문학적 성취나 대중적 기여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문화 유통이라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번역이 직면하는 강제된 선

택과 그에 따른 미학적 타협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택적 이국화와 가독성 중심의 전략은 한국 문학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소거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번역 주체를 글로벌 출판 환경 속 ‘확장된 번역 주체’로 개념화하였으나 분석 자체는 텍스트 내적 대조에 한정되어 있어 출판사, 에이전트, 편집자 등 개별 외부 행위자의 구체적 개입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출판사 기록, 편집 메모, 번역 계약서 등 출판·사회학적 자료를 활용한 행위자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연구자의 전수조사에 기반한 사례 분석을 주된 방법으로 삼았으나, 향후 대규모 말뭉치 분석이나 실증적인 독자 반응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소년이 온다』 번역을 둘러싼 논쟁을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상업주의, 독자 수용, 문화적 위치성이 교차하는 복합적 권력 관계의 산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향후 번역 연구는 이국성의 보존 여부를 넘어, 타자성이 어떠한 권력 구조 속에서 재구성되고 통제되는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그 지평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중. (2021). 「『소년이 온다』의 번역을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와 혼란」. 『영어영문학21』 34(1): 1-29.
- 신상범. (2020).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 *Human Acts* 번역전략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8(1): 137-160.
- 신지선·조혜진. (2018). 「번역서에 대한 한국과 영미권 독자의 서평 비교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43: 105-129.
- 윤미선·박건영. (2019).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 『*Human Acts*』의 영어권 독자수용 예비 연구」. 『통역과 번역』 21(2): 87-117.
- 윤선경. (2024). 「번역에서 문학으로: 데보라 스미스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영어번역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94: 83-104.
- 이지민. (2018a).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에 나타난 정보성 조정 전략 연구」. 『통역과 번역』 20(2): 97-121.
- 이지민. (2018b). 「『채식주의자』 영역본 *The Vegetarian*의 삭제 전략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79-207.
- 조의연·조숙희. (2016). 「『소년이 온다』 이탤릭체의 담화적 특성: 한강과 데버러 스미스」. 『영어권문학연구』 9(3): 257-274.
- 조의연·조숙희. (2017). 「이탤릭체의 문체적 활용: 『소년이 온다』 한영번역 연구」. 『번역학연구』 18(5): 231-252.
- 한강. (2014). 『소년이 온다』. 파주: 창비.
- Badioiu, L. & Lee, J. (2022). "Rewriting of poetry: A case study of the translation of Yideum Kim's Hysteria."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60: 7-28.
- Bassnett, S. & Trivedi, H. (1999). "Introduction: Of Colonies, Cannibals and Vernaculars." In S. Bassnett and H. Trivedi (eds.),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1-18. London: Routledge.
- Freud, S. (1919/2024). *The Uncanny*. Trans. Max Habicht. Elizabethtown: Continental Press.
- Han K. (2016). *Human Acts*. Trans. Deborah Smith. London: Portobello Books.
- Nelson, V. (2003). *The Secret Life of Puppet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iranjana, T. (1992). *Si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lonial Contex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k, Y. (2020). "From Gwangju to Brixton: The impossible translation of Han Kang's *Human Acts*." *Lateral* 9(2). <https://doi.org/10.25158/L9.2.2>.
- Spivak, G. C.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In C. Nelson and L.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271-313.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pivak, G. C. (1993). "The Politics of Translation." In C. Spivak (ed.),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179-200. London: Routledge.
- Tymoczko, M. (1999). *Translation in a Postcolonial Context: Early Irish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 Tymoczko, M. (2007). *Enlarging Translation, Empowering Translators*. Manchester: St. Jerome.

- Venuti, L. (2008).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2nd edn). London: Routledge.
- Vincent, S. (2003). "Preserving domesticity: Reading Tupperware in women's changing domestic, social and economic roles."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40(2): 171-196.
- Yoon, S. (2021). "Decolonizing acts: An analysis of Deborah Smith's English translation, Human Acts." *Acta Koreana* 24(2): 75-92.

This paper was received on 5 May 2026; revised on 1 June 2026; and accepted on 15 June 2026.

Authors' email addresses

ke9836@daum.net

shm213@gmail.com

About the authors

Jimin Lee (First Author)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iterary translation, multimodal transl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Sunghye Mah (Corresponding Author)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Dongguk University, Seoul. Her research interests encompass literary translation, AI-assisted translation, and content translation.